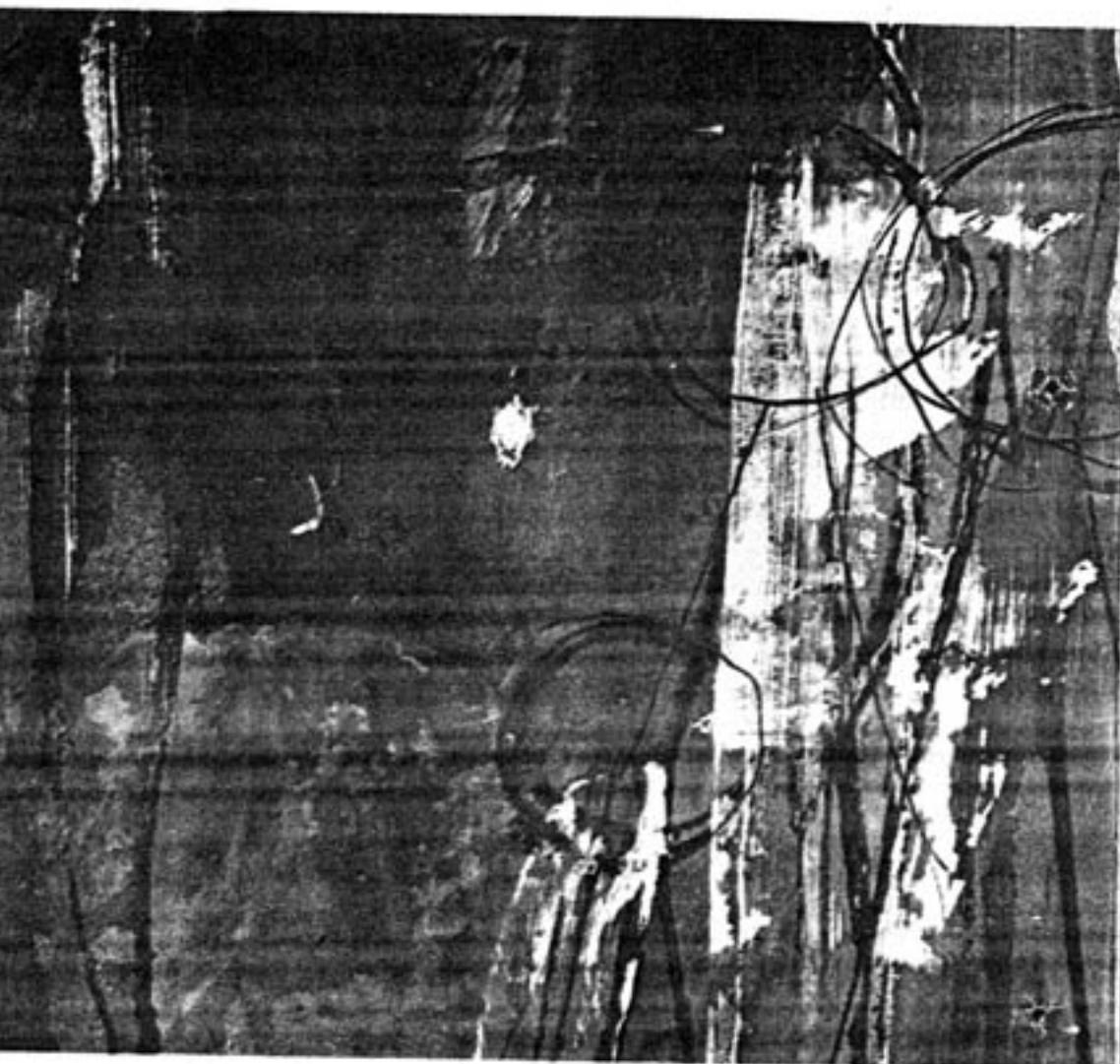


北韓專報 2

1971年11月4日發行 番號-1536号・1972年1月25日印刷・1972年2月1日發行

第1年第2号 2月号



特輯 I 北京의 흐정 特輯 II 北僕軍



月刊
北韓
創刊号

서울↔東京 每日午前午後2回 運航

韓日 및 東南亞 路線投入!

- 世界一週路線開設 且是 一級國際航空社 水準到達
- 1973年度 보잉747客機導入
- 安全度世界一位 記錄保持
- 世界 어느곳이나 無着陸으로 날을 수 있는 長距離用
- 座席 188席



大韓航空
KOREAN AIR LINES

國際支店：22-3161(代)

소울 희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장관!」 하면서 장교가 다가오더니 숨언이나 듣고 충상하고 했다.
똑바로 선봉이나 밤이고 죽자. 혹시 어 기 있는 자들의 입을 통해 소문이 퍼져나 죽음이 남편에게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헤쳤다.

「나는 남편을 찾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 남편은 당신들의 적인 꽁꽁 묘지지만 만약 그이가 남편들에게 로모로 전해지거나 하여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전해 주어

요.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라는 행 복장을 하고 죽었다고……」

그려 장교가 나에게 «아이 오너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눈을 감은채

「내 남편은 국군 소령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9월 18일 부산에서였다. 그렇게 그립던 남편을 만난 순간 나는 그 낭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남편도 빙그레 웃으며 어깨 아픈데는 없느라는 말투였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한토막의 개인 체험기를 통하여서나 마흔 계례를 미국 속에 돌아 있었던 복지 그는 다른 남편의 육사 동창인 국군 一사단 수색대장 한승하 소령이었다. 나를 칭찬은 대경의 활사는 「프리온으로 비롯한 좋은 수식 대원이었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9월 18일 부산에서였다. 그립게 그립던 남편을 만난 순간 나는 그 낭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남편도 빙그레 웃으며 어깨 아픈데는 없느라는 말투였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9월 18일 부산에서였다. 그립게 그립던 남편을 만난 순간 나는 그 낭만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의 얼굴만 보고 있었다. 남편도 빙그레 웃으며 어깨 아픈데는 없느라는 말투였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金銀界의 座標 信用의 象徵

正金社

金銀
寶石
時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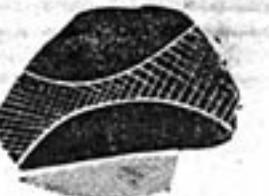
代表社員 金文經

서울特別市 中區 南大門路 二街三三

(22)-1992 (22)-0520
TEL (28)-3008 (23)-1297

이달의 인터뷰 — ③

拉北人士家族



明演世先生 夫人

洪鍾壬女史

六一歲

(洪鍾壬女史)

문 새해를 맞아 家內에 만복하심을 축

복 드립니다.

부드럽습니다. 합나라한 아시다 살이 現時局은 바지 6·

二五저야를 奉拂하는 비상사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明演世先生(당시 初代審計院長)이 拉北丙辰 6·二五의 慘變을 다시 한번 회재기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찾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입니다.

답 지금도 꿈같습니다. 어찌먼 몸 둘에게 불쌍하지 않고 끌려 路遙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未練이 아직도 가시지

할수 없습니다.

그대 우리는 어린 아이들(제금은 모두

장성했지만)과 儿女를 관사에서 6·二五의 慘變을 당했습니다.

數많은 사람이 渡江하지 못한 것처럼 그

機會가 없어 先生은 (영재세옹) 당시 혼자

서市內 観知침을 轉轉하시며 10餘日을

피신하시다가 친구들 걱정을 하시고 7月

9日 하오 一시경 韓家하셨는데 아마도 놀

들은 잠시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절안

에서 이야기 할 사이없이 위파라 들이닥친

수명의 韓家에 의해 잠깐 활동이 있다

고 하면서 밤으로 대리고 나가온군요!

그래서 허동지 등 나가보니 이미 대기하고

있던 「엔트란스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

갔습니다.

문 그후 先生과 寂無을 우……

답 너무나 순차적으로 양한 일이라 가

족들이 야무는 경환이 있었겠어요. 소식

을 알아볼 것도 없었지만 그저 공포와 불

안속에서 이첨 저질 아는 점을 찾아 路遙

하면서 9·二八수복을 맞아 간신히 목숨

만은 부지했지요.

그래서 1·4後退에는 어떤것들을 데리고 釜山을 거쳐 제주도까지 南下하였는데 그때의 路遙苦生이란 말로는 다 할 수

문 그후 지금까지先生의 행세여부나 무

손 소식이 있나요?

답 정부 원도와 어부리 서울에 올라와

致한데 서울서 평양까지 「트럭」에 실고 갔

다고 하는데先生이 車에서 오르내리 성적

부속하여同行했다.

「진승학제(서울서 상

봉)의 말과 역시 평양까지 꿈에 갔다가 죽

死一生으로 說出(九月 一〇日頃). 해온 제

장운석(前國會議員) 앞에 의하면七月 一五

日까지 「平壤監獄」에서 선생과는 한 달

(四〇餘名收容)에서 지냈다는 소식을 들

었을때 그 뒤 안부는 알았다는 차우래 일

제 一〇주년이 훌쩍过去了다.

문 拉北人士家族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南北赤十字社會에 대한 기대나 소

감은?

답 좋지요 한마디로 능률의 고집에

넘어갈까 도리어 집이 암신하고 할까요?

그것은 六·一·二五 전야에 있어 네의 舞晚植

先生의 경우를 想起하지 않을 수 없기 때

문입니다.

다면 바란다면 그해 선생님의 나이가

六六세였으니까 벌써 七八세가 되겠군요

그리나 長壽하시는 선생이니 천재 것 같아

셨으니라 추억과 산아계셨으면 하는一番

의期待를 갖기도 합니다. 아래처럼 우리

가족 관계와 현제의 생계 유지는?

문 손하에 一男 一女를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빛을 보고 있어

요. 하지만 지난날을 回憶하면 파란칠

이 많았던 그 출생이란 이루 말을 못 다

하자요.

무엇보다 자라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학업과 일에 헌신했던 父母 「어미」도 시

의 心情은 지금도 희망 사부자 있습니다.

一生을 두고 있을수 없을것은 白水縣牧

(前平北道知事)님의 도움으로 진양촌.

진봉현 선봉면 동 醫名人士들의 慶賀으로

출생한 학비를 一원이나 (정신학교)에

들어주신 은답은 白骨難忘입니다.

현제 장남(即大星=三十九세)은 遷世大器

되신 갑작입니다.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社

會상은 너무도 차갑고 離母痛의 아쉬움을

禁할성이 없어야. — 남북가족이라고 해

서 어떤同情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도 서



拉北之子 前之 家族、右로부터 長男 大星、長女 韓星、明善校長、次女 金星、次男 長

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데, 이런 惠澤이 있

었으면...

문 가족 관계와 현제의 생계 유지는?

답 손하에 一男 一女를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그 빛을 보고 있어

요. 하지만 지난날을 回憶하면 파란칠

이 많았던 그 출생이란 이루 말을 못 다

하자요.

무엇보다 자라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학업과 일에 헌신했던 父母 「어미」도 시

의 心情은 지금도 희망 사부자 있습니다.

一生을 두고 있을수 없을것은 白水縣牧

(前平北道知事)님의 도움으로 진양촌.

진봉현 선봉면 동 醫名人士들의 慶賀으로

출생한 학비를 一원이나 (정신학교)에

들어주신 은답은 白骨難忘입니다.

현제 장남(即大星=三十九세)은 遷世大器

되신 갑작입니다.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社

會상은 너무도 차갑고 離母痛의 아쉬움을

禁할성이 없어야. — 남북가족이라고 해

서 어떤同情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도 서

【세】는 出嫁、二女(金星)=五歲는 庆

熙大君 護學科를 억지 【金星】는 五歲이랑

나다.

문 화제는 다르지만 선생은 日政下에

서는 殖國獨立運動을 활성화해 解放前에

있던 아는 邦勢의 興盛을 저정한 나에게

우선 「平壤」(당시 長男은 少財, 次男은 大

財)를 「平壤」을 지나니서 江岸에 「만죽거리」

까지 漢江을 지나니서 漢江에 오니까. 漢

에서는 「人民軍」과 「平壤」으로 아암일

식이라. 長男사람을 만이 염려합니다.

— 지금 생각하여도 어리석었지만 같은 학

교의 莫先生(후에 알았지만 그자는 長男

이었음)으로부터 전래안심하고 할아버지

를 찾았으라는甘言利說이 넣어갔지요.

다음날인 二月 一일 아침 十一時경 그때

는 新開洞에 있는 학교 주변에 살았는데

이 마치 王이 舉을 이었어요.

문 군데 간후 혹시 面會하는가 무슨消

息이라도 전해 줄이셨나요?

답 「기부」 漢江에 달린 橋인가니 하루

지 등 하면서 漢江지를 비롯 서대문 청우소

를 어려차에 찾았아가서 漢江이나 漢河라도

해복하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遊樂였습니다.

그러면 어느날 고향(孝鄉)에서 할아버

지가 가로친 弟字로 面具 아들로서 과거부
부서 六·一五受難의 생생한 교훈을 모든
한편 저는 軍에 복무중(수색某部隊)에

朴重遇先生夫人

—七四歲—

문 새해를 맞아 福耀하십시오. 이렇게

잘난 것은 拉北人士들의 가족들도

부터 六·一五受難의 생생한 교훈을 모든

(拉北當時—城東工 高校訓育主任)

답 선생 고향은 拉北家鄉少林面 용강
동 賦生입니다.

답 선생 고향은 拉北家鄉少林面 용강
동 賦生입니다.

解放前 漢國內에서 朝鮮物產獎勵會常務
理事、新幹線 등 漢國愛族運動에參與하시
였고 그 뒤 中國으로 「命」。天津에서 「不
歸國」을 選擇하고 開始에 就任하여 關立運
動을 展開하시다가 沈相玉烈士를 비롯한
忠順 등 志士와 함께 漢國에潛入, 충북 암
살을 모종 開始을 벌이다 被逮되어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初代審計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躍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後는 漢國 國民黨에 參與, 또는

大韓獨立促成國民會 建設, 以北人代表團

長等要職을歷任하시고 정부수령과 동시에

中大學生會長으로 活跃하여 被選為 西大門

刑代客院長으로 被處死되었던 것을 當하셨습니다.

解放

여 반가웠던지 마치 구제주를 만났겠 같아—그리서 그에게 혹시 소식이라도 알아 볼까해서 사정 사정 해보았으나 들어줄리 가 있어요。—

치면서 차운에 있던 많은良い을 統設했
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 하는 생각에서 間
體를 찾아본 일도 있었으니다.

그 할아버지의 능률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아들이나 그 친구들에 나가 나혼자 절을 지키면서 「一八수복을 지키고 막아들이 절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四우회에 는 가족들과 大田까지 路下했다가 아들이

東歐

2

유고슬라비아篇

一、 유고슬라비아의 略史 二、 國內外 政治情勢
三、 民族對立과 南北問題 四、 經濟事情
五、 對內情勢 六、 對外情勢

유고슬라비아의 前身은 「제르트크·크로아트·스로베니아」¹⁵로
도 「제르트비아」¹⁶, 「크로아티아」¹⁷, 「슬로베니아」¹⁸, 「체스코
아」¹⁹, 「슬로베니아」²⁰ 등에 多民族國家이다. 이를 각 민족
은 少數民族을 跛外하고 모두 南「슬라브」系에서 分化되었으며,
六~七세기에는 南「슬라브」의 土기들을 植民하였다. 동북에
위치한 「제르트비아」와 「마케도니아」는 히방正敎의 영향을 받았
으며, 서쪽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가톨릭」
의 영향을 보다 강력하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상의 차이

는 이들 각 민족간에 대립과 격차를 이루며 각각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五四기前까지는 「로산」을 王朝 중심으로 大「세르비아」 또
國으로 하지 않았던 일이 있으나 —五四기 中半期에 들어와서는
「오스만·터키」의 延續이 되어 民族抗爭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고에서 民族運動이 본격화 되었고 그 조기기는 一八七〇년대에서
다른 東歐지역에서 시작된 民族運動時期와 함께 같이하고 있다.
—一八五〇년 마침내 우고는 土耳其의 王朝主權下에서 해제되었고
독립을 수립하게 되는데 —一八五〇년대의 「제로리아」
현대 우고부 「발칸」地域에서 自治를 외우한 것은 이 「제로
리아」 출신들이었다. 이보다 앞서 一八〇〇년대의 「제로리아」
「코로아체아」 「슬로베니아」 「크로아체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리우란 民族運動을 전개하고 각 민족을 葉結시켜 「슬로바코」
即 「우고수반국」運動을 펼쳐나가고 있다. 「슬로브로리아」 「제로리아」
에서는 「제로리아」 「슬로브로리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를 통합한다고 하는 「대제로리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민족의식
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後方部隊에 군무수가 배분해 활동할 때 미

제가 저수 험에서 험하고 싶었고
이루어 저기를 봐고 싶었고
같이 봐 저기장을
놓았을 때 그때도?

부수였다.

단 솔하에 三男四女를 두었을 그 남편
중 둘째 아들(박순진)은 六·二五세(한장
현부)에 사(서사)·(광주)隆昌大尉(1776)



는赤十字會에 대한 소감이나 둘러 친구
人土家族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답. 글쎄요. — 잘되었으면 얼마나 좋겠
어요. 사람이 잘 되면야! — 앞에서도 말
했지만 흔히 남아 있는 말(소생) 「一男一女」
을 보고 싶은 마음 갖게 합니라만 「중선당」
놈들은 학생 억지 말을 꾸미니까 열로 기
대가 가지 않코 所願이라면 즉 기진에 할
아버지의生死와 품타도 알았으면 그리고
그 할에 한번 가보으면 하는 생각뿐입니다.

後方 蔭陽에 근무했기 때문에 欽獻殿 與
다위따라 水源·天安 또는 강원도 江陵 등
자를 韶轉하다가 정부 환도로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 그후 成興徵收作歌을 비롯 休戰會
議을 하면서 한반도 사람의 越南에 살고 있는 人
便을 통해 무슨 소식이라도?

— 이후 외교 접두운 사람을 많이
찾아 만나왔지요. 그들이 한아조지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있거나
친척들 소식과 우리가 韓國에 出使하기
때문에 당초 오지 못했던 만큼의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후회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렇게
나온 신이 있습니까 즉 欽獻殿 與 史記(史記)「
우리 것으로 간 하였을까요?